

# 강진군, 낭충봉아부패병에 강한 토종별 보급

### ‘꿀벌 에이즈’ 2009년부터 확산 3년여 만에 전체 토종별 90% 폐사

### 바이러스 저항성 토종별 증식사업 추진해 한농산업 활성화 기틀 마련

강진군이 토종별 사육 기반 구축을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 계통의 토종별을 강진한농협회(회장 김광수)에 보급했다고 21일 밝혔다.

낭충봉아부패병은 꿀벌 유충에 발생한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발병 시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지 못하고 고사해 봉군 전체가 전멸하는 치명적인 질병이다.

치료제나 예방약이 없어 일명 ‘꿀벌 에이즈’라 불린다. 국내에는 2009년부터 확산돼 3년여 만에 전체 토종별의 90%가 폐사했고, 그

여과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어 농가들에게 저항성 품종을 공급받는 것은 최대 숙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군에서는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 품종 증식을 위해 이전 농촌진흥청 토종별 복원 실증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김광수 강진한농협회장을 사업 대상자로 선정해 저항성 품종을 보급했다.

또한 차단 방역을 병행한 기술 지원과 농가의 사양기법을 적용해 바이러스에 안정화된 사육 군수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감으로써 관내

한농 산업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강진군농업기술센터 김춘기 소장은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 품종을 성공적으로 증식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분양보다는 외부로부터 철저한 차단 방역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번 저항성 토종별 증식 시범사업을 통해 관내 한농 농가들이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해 소득 창출과 함께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강진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와 한농농가가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 토종별을 점검하고 있다.

## 해남군, 군정 현안과제 부서간 협업으로 해결

해남군이 군정 주요정책의 부서간 협업을 강화하고, 복합민원 해결 등 현안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통합조정 기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군은 복합적·다층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행정 수요에 맞춰 다양한 부서간 협업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통합조정회의’를 컨트론타워로 해 각종 사안에 대한 조정·관리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통합조정회의는 군정 주요정책의 개발 수립 및 제도 개선사항을 사전 조정하고, 사업시행 상 문제점이 야기된 주요사업 및 현안의 해결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특히 다수 부서가 관련된

### 통합조정 기능 강화

### 행정수요 협업 대처

민원사항의 주 처리부서 지정 및 부서 간 사무범위를 조정하고, 신설사무 및 소관부서가 불분명한 사무를 조정해 다양화되고 있는 행정수요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점검하게 된다.

이와 관련 강상구 부군수 취임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통합조정회의를 통해 주민주도형 일자리 사업 발굴과 기후변화대응 국립농업연구단지 조성, RE100사업 추진, 코로나19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리랜서 강사들의 지원 방안과 종합적 대책 등 부서간 협업이 필요한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강상구 부군수는 “행정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한 부서가 모든 것을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통합조정회의의 제 기능을 강화해 지역주민의 숙원과 민원을 협업을 통해 해결하고, 군정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진도=조성용 기자

## 달콤한 ‘완도자연그대로’ 해변포도 본격 수확

### 안토시안 등 기능성 성분과 당도 타 지역보다 높아



완도군 군외면에서 해변포도가

본격적으로 수확되고 있다.

완도 해변포도는 총 5ha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하우스 포도는 7월 20일부터 수확과 함께 판매를 시작하였고, 노지 포도는 8월 하순부터 수확한다.

완도는 남해안 끝자락에 위치

하여 내륙 지역보다 따뜻하고 깨끗한 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해안가에서 재배되는 해변포도는 해풍을 맞고 자라 포도 알이 탱글탱글하고 달콤한 맛을 자랑한다.

특히 당도가 타 지역 포도보다 1-2brix 정도 높으며, 17brix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껍질째 먹어도 식감이 뛰어나다.

완도군에서는 해풍의 농업적 이용까지 구명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16년 포도의 경우 안토시안 등 기능성 성분과 당도가 타 지역에 비해 높다고 발표한 바 있다.

휴가철 완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완도군 군외면 해안도로를 이용하면 싱싱하고 달콤한 포도를 현장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다.

해변포도를 첫 출하한 김준환 씨는 “올해는 봄철 저온과 6월 이후 잦은 강우와 흐린 날씨로 재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행히 울

해도 품질 좋은 포도를 생산하게 돼서 뿌듯하다.”고 말했다.

한편 포도는 비타민과 유기산 등 영양소가 풍부해 ‘신이 내린 과일’이라고 불리며, 혈중 산화질소 농도를 증가시켜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어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

또한 이노박음이 탁월하여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며, 갈증 흡수를 돕는 비타민C와 D가 풍부하여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완도=김광수 기자

## 장흥 장평면, ‘내 밥은 내가 남성요리교실’ 호응

### 장흥 장평면, ‘내 밥은 내가 남성요리교실’ 호응



장흥군 장평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용문)은 ‘내 밥은 내가’ 남성요리교실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60세 이상 남성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요리교실은 만들기 쉬

운 간단한 밑반찬과 일품요리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6월 24일부터 시작하여 10회 과정으로 매주 수요일은 간단한 밑반찬 금요일에는 일품요리법을 운영하고 있다.

요리교실은 현재 6회차까지 진행됐다.

간단한 밑반찬 과정에서는 가정에서 쉽게 요리 할 수 있는 잔별치볶음, 우렁이쌈장, 참치전, 오징어볶음 등을 만들었다.

일품요리 과정은 밀피유나베, 삼선짜장, 토피아 등으로 다소 생소하지만 어르신들이 쉽게 음식을 조리할 수 있도록 알려 주고 있다.

## 진도군, 주택·건축물·선박 등

### 7월 재산세 12억원 부과 고지

진도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 12억원을 부과 고지하고 자진납부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과 일반건축물이 분리되어 과세된다.

2020년부터 주택분 재산세는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과세되고, 20만원이 초과되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과세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입금 납부나 이체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와 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휴대폰) 등으로도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담되고,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1.2%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반드시 납기 내에 재산세 납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도=조성용 기자



# 함평천지농특산물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함평천지 농특산품을 만나보세요.

함평 로컬푸드 직매장 Tel 061-324-8331









